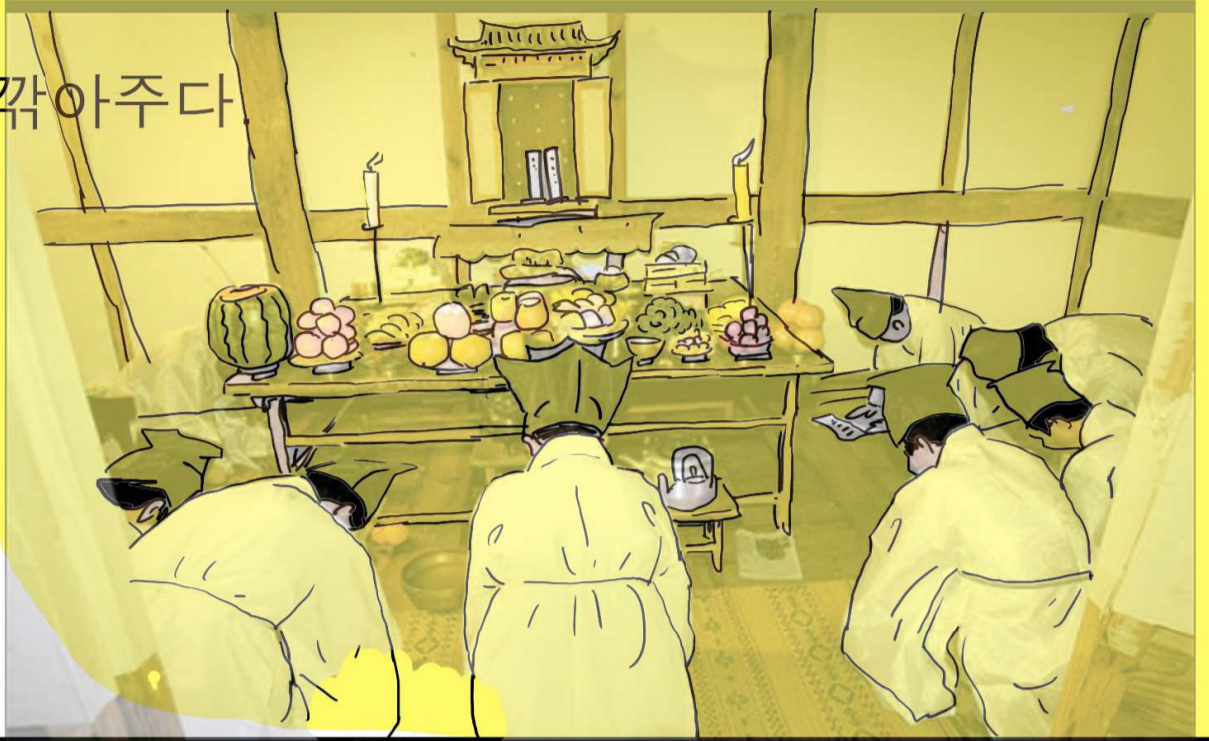


# 9. 퇴계의 부인사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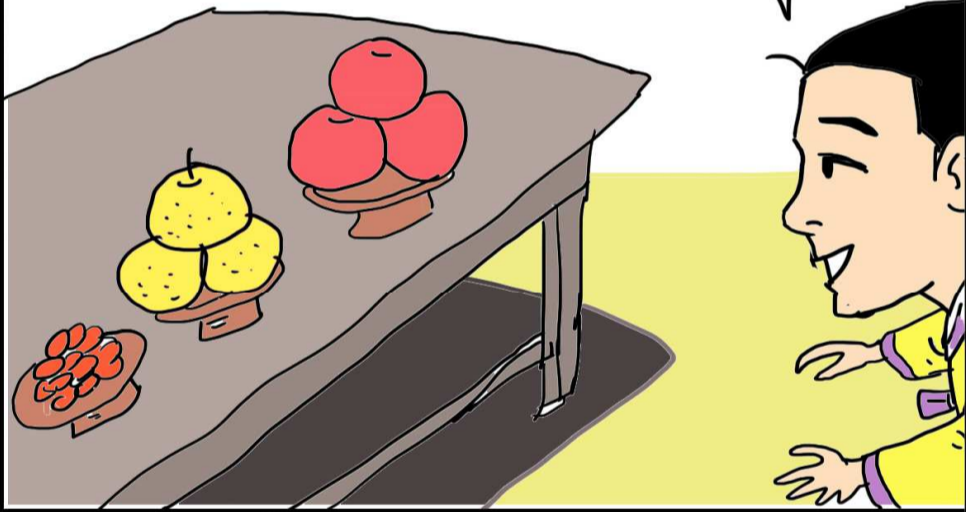
## (1) 아내에게 배를 꺾어주다

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다.



과일을 차려놓는데

배가  
맛있겠다!



권씨 부인이 제사상에 올려진 배를 치마폭에 숨겼다.

어머,  
동서!

슬쩍!



조상님 상에  
손을 대다니  
이 무슨 짓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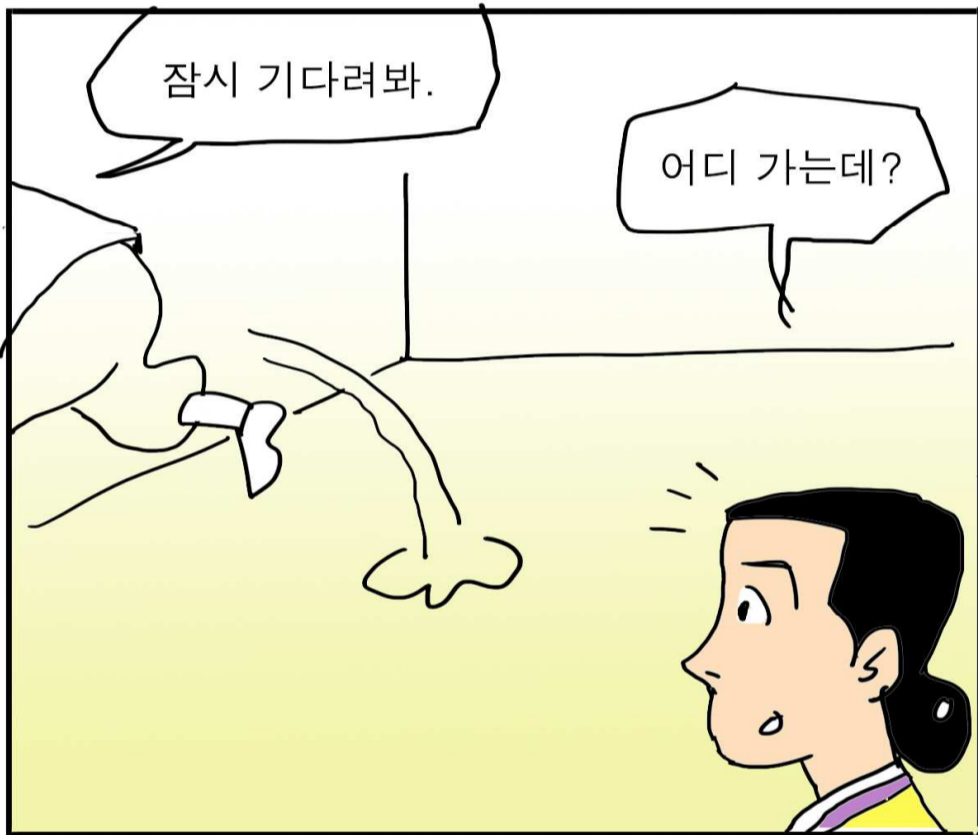
마침 퇴계의 형수가  
이를 봤다.



형수님 너무  
나무라지 마십시오.







(2) 빨간 천을 덧댄 도포를 입고 문상을 가다.

